

## 충남·전북지역 해외이주 결혼가정 지원 심포지엄 가져

- 5월 19일 전북도청에서, 시·도인적자원개발담당자 등 100여명 참석-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공동으로 5월 19일 오후 2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이형규 전북도행정부지사, 전국 RHRD센터 관련자, 시·도인적자원개발담당자, 시·도교육청담당자, 도내 초등학교담당자, 이주여성 관련기관, NGO,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전북지역 해외이주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RHRD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최근 한국계 美꽃불 하인즈 워드 선수의 방한에 따라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혼혈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촌지역의 해외이주 결혼가정이 급증하고 이들의 가정 정착과정 및 적응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들 자녀의 경우 가정내 학습 습득이 어려워 언어발달 장애, 학습능력 지하 등 취약한 기초인적자원의 성장기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충남·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는 해외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저비전스적 접근으로 지역의 정책네트워크의 방향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승용배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장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에 대하여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의 '범정부적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역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사례에 대한 부분에서는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윤애란 우리가족상담센터 소장의 '충남 해외이주결혼가정 RIIRD 정책사례' >이현선 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센터장의 '전북 해외이주결혼가정 정책사례' 등 생생한 현장 체험자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결혼이민자가정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